

[자료해설]

한운사의 광복절 특집드라마 <기다려도 기다려도> 해제*

정현경**

한운사(본명은 한간남(韓看南), 1922~2009)의 방송극은 선택된 사실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인간의 삶과 역사의 속내를 허구라는 틀 속에 담아 그려내며 시청자로 하여금 가려진 역사 속 진실과 대면하게 한다.¹⁾ 일제의 강점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산 한국인들 모두가 그러하였듯이 한운사는 파란만장한 한국사를 그의 인생에서 현재로 살아왔다. 80여 편에 달하는 한운사의 방송극은 그의 인생 여정인 동시에 그가 살아온 질곡의 역사에 대한 미메시스(mimesis)라고 할 수 있다.

극작가로서의 한운사가 추동해내는 상상력의 구심점이 그가 살아온 '한국사'에 맞닿아 있는 것은 그의 문학과 관련이 깊다. 그는 문학이나 영화를 자기가 살아본 세상에 있었던 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는 이야기, 그런 것을 재현해 내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가를 상의해보는 장으로 인식하였다.²⁾ 더불어 그는 식민과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트

라우마(trauma)를 '소화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건강도, 개인의 건강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³⁾ 한운사에게 있어 '악몽'과도 같았던 민족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한 민족의 '트라우마'이자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독소'와도 같은 것이었다. 한운사가 끊임없이 '한국사'를 소환하고 있는 이유는 문학이 독자/시청자로 하여금 불행했던 역사로서의 민족적 '트라우마'를 직면하도록 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한운사의 극작은 일제강점기와 8.15광복, 한국전쟁 그리고 4.19혁명과 5.16쿠데타로 대표되는 정치적 갈등과 모순의 1960~1970년대로 이어지는 질곡의 한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한운사의 작품 중, 「기다려도 기다려도」는 광복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향한 노모(老母)의 기다림과 죽음을 통해 민족의 수난과 비극을 극화한 '광복절 특집드라마'이다.

1970년대에 8.15광복을 기념하는 특집극으로 방영된 한운사의 TV 방송극은 모두 4편이다. 광복 30주년 기념 특집극으로 방영된 「미숫가루」(TBC, 1975)를 비롯하여 「기다려도 기다려도」(MBC, 1977)와 같은 해인 197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3부작으로 제작되어 미니시리즈의 가능성을 보여준 「나루터 3대」(KBS, 1977) 그리고 「파도여 말하라」(TBC, 1978)가 그것이다. 1970년대에는 계몽과 선전선동의 목적극이 주류를 형성하였는데, 이들 특집극을 통해서 목적극의 실상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억압과 통제의 방송 현실에서도 소극적이거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견지하고자 했던 작가 정신도 발견할 수 있다.⁴⁾ 한운사는 광복 기념 특집극들을 통해 일제강점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을 극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

* 방송극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한운사, 「기다려도 기다려도」, 한국방송극작가협회 편, 『한국 TV·라디오 드라마 걸작선』, 세종출판공사, 1979. 이 작품은 1977년 8월 14일에 '8.15광복 특집극'으로 방영되었는데, 한운사의 극본을 유흥렬(柳興烈)이 연출하였고 정혜선, 최불암, 김자옥, 김호성, 신충식 등이 출연하였다. 이 책의 인용은 본문에 페이지를 기록하였다.

** 충남대학교 강사

1) 정현경, 『한운사의 방송극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4~26면 참조.

2) 한운사, 『구름의 역사』, 민음사, 2006, 112면.

3) 위의 책, 126면.

4) 윤석진, 「광복 30주년 기념 특집극 <미숫가루> 해제」, 『한국극예술연구』 제37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231면 참조.

인 시각에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기다려도 기다려도」는 광복 이후 30여 년이 흐른 서울의 종로를 극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197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 어딘가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해 동시대성과 리얼리티(reality)를 획득하고 있다. 극의 전개는 교회의 교육관을 짓기 위해 몇몇의 교인이 여씨 할머니(정혜선 분)가 살고 있는 땅을 매입하고자 하나 할머니가 매매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시작된다. 할머니가 땅 팔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로 인해 독자/시청자의 궁금증은 증폭되고, 결국 서서히 할머니의 사연이 밝혀지기 시작한다.

여씨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징병당한 둘째 아들 재성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다. 광복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의 소식은 없다. 그 누구도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씨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아들이 생환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집을 지키며 외롭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할머니의 간절한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씨 할머니가 살고 있는 땅에만 관심을 보인다. 교회 교육관을 짓기 위해 어떻게든 땅을 사려고 애쓰는 교인들을 비롯하여 큰아들 재건이 어음을 갚지 못하자 여씨 할머니의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는 엄격호나 재건의 아내 등은 모두 할머니가 집을 지키는 이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때마침 재성의 전우였던 두 명의 사내가 재성이 이미 오래전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여씨 할머니에게 전한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여씨 할머니는 더 이상 집을 지킬 이유를 상실하고 쓸쓸하게 운명한다.

「기다려도 기다려도」는 민족의 수난과 비애를 여씨 할머니의 비극적인 기다림의 삶과 죽음으로 그려냄으로써 일제의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기다려도」를 반복하고 있는 제목 「기다려도 기다려도」는 여씨 할머니의 아들에 대한 기다림의 크기와 간절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할머니

의 기다림이 좌절될 것임을 암시한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할머니에게 ‘광복(光復)’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며, 식민 지배로 인한 민족 수난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일 뿐이다. 여씨 할머니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큰아들 재건 부부의 모습과 허망하고 무표정한 전 노인(최불암 분)의 표정은 극에 비극성을 더하며 민족의 비애를 환기시킨다. 이때 들려오는 교회 성가대의 코러스는 할머니의 죽음을 추모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렇듯 「기다려도 기다려도」가 비극적인 파국을 맞으면서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은 더욱 고조된다.

여씨 할머니의 기다림은 아들에 대한 기억을 전제로 한다. 할머니는 “떨쩍한 얼굴로 끌려가던”(244면) 순간의 아들 얼굴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8.15광복으로부터 32년이 지난 1977년까지 할머니는 징병 당하던 당시의 아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의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때도 할머니만큼은 아들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다. 할머니의 비극이 한 개인의 불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민족 수난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아들에 대한 할머니의 기억을 민족 수난의 역사에 대한 민족적 기억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려도 기다려도」는 민족 수난의 역사에 대한 기억의 서사이자, 지난한 역사의 극복과 진정한 주권 회복에 대한 기다림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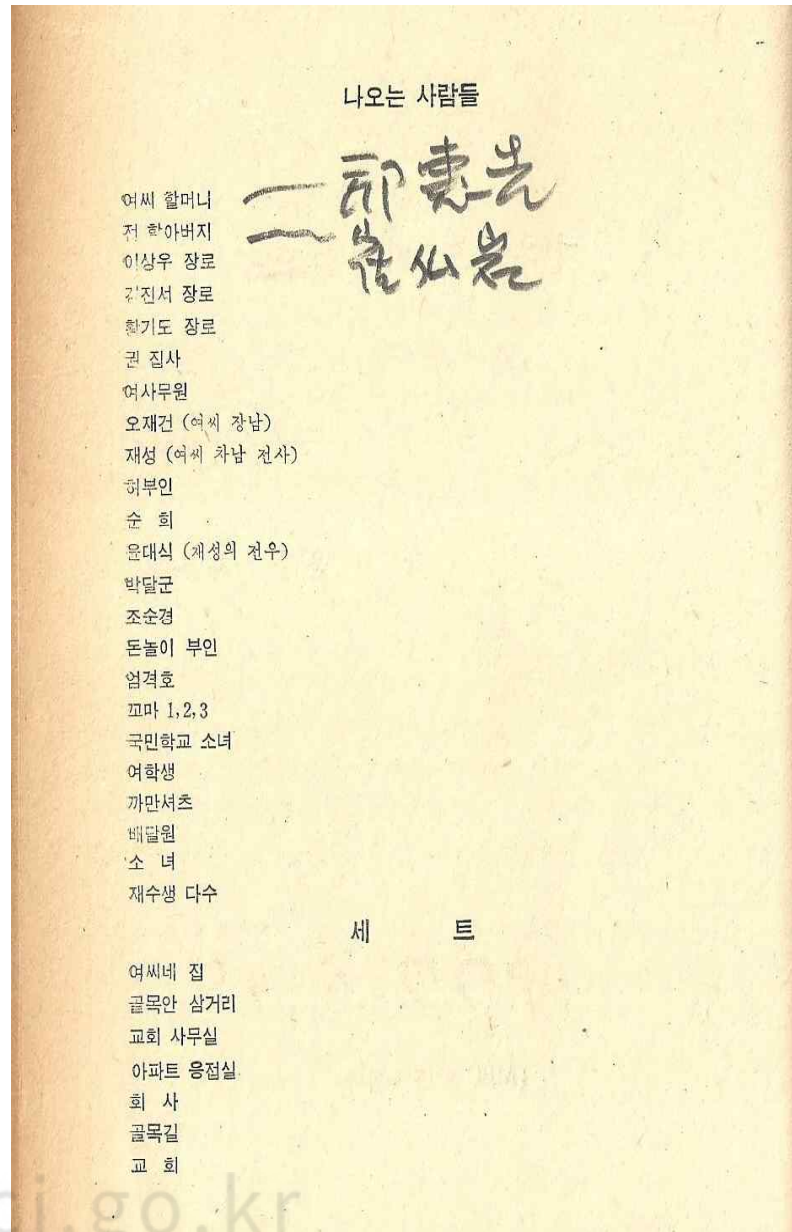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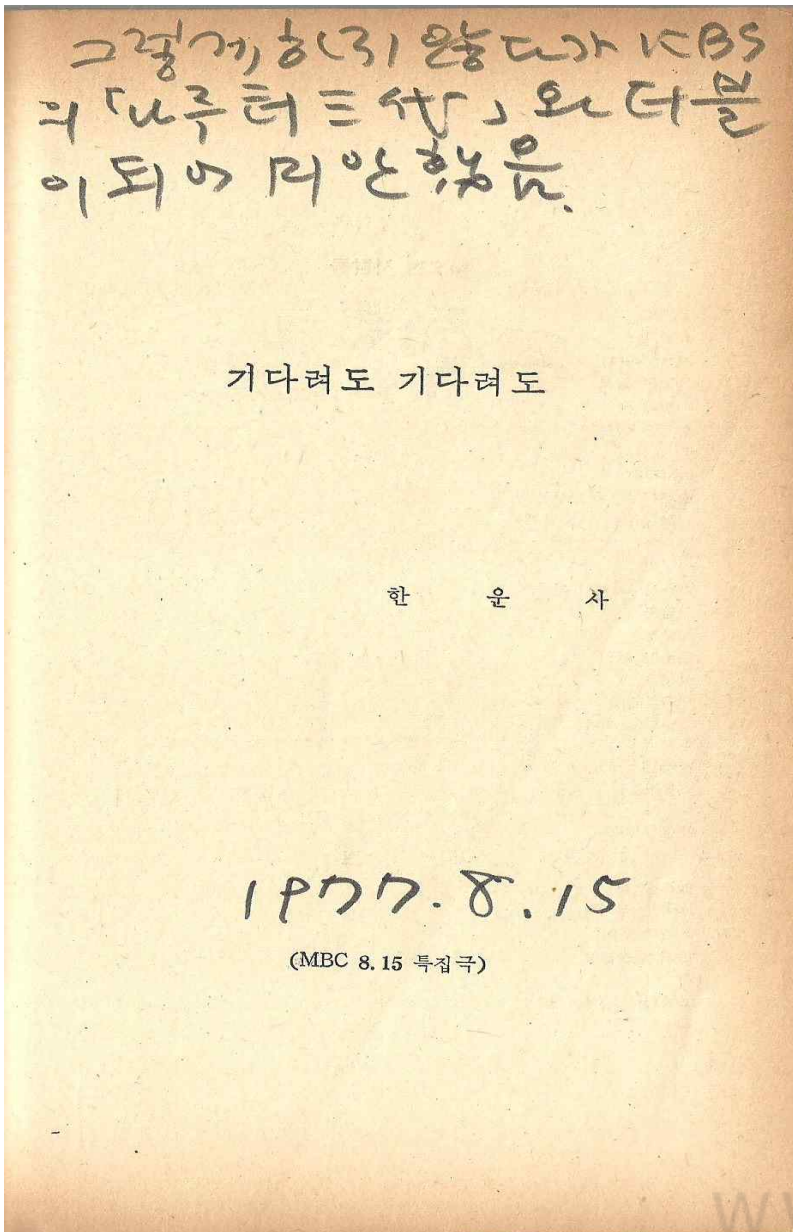
여씨 할머니의 죽음은 역사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문학작품에서 흔히 ‘조국이 어머니’로 상징되듯이 여씨 할머니도 수난의 역사를 살아온 조국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여씨 할머니의 죽음은 역사의 비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러한 역사의 종결을 의미한다. 한운사는 등장인물의 명명(appellation)을 인물의 캐릭터(character)를 창조하고 주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극작술의 하나로 활용한 작가다. 그의 명명 기법은 「기다려도 기다려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할머니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한운사는 여씨 할머니의 큰아들 이름을

‘오재간’으로 명명함으로써 여씨 할머니로 상징되는 비극의 역사를 종결하고, ‘오재간’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재간’될 것이라는 희망과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여인의 인생에서 가족사의 비극을 넘어 민족의 슬픔과 과제를 환기시키는 「기다려도 기다려도」를 통해 1970년대 근대화와 산업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것도 이 극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재미이다. 여씨 할머니의 집은 “고층 빌딩의 전깃불이 여기저기 환”(241면)하고,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와글거리며 밤낮으로 쏘고 닦아도 먼지가 쌓”(249면)이는 “소음”(233면) 가득한 종로의 뒷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건설과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자, 1970년대의 서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할머니의 집에서 가정부를 하고 있는 순희는 시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 상경한 젊은 처녀로, 1970년대 이농현상이 야기한 여성 하위주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공장이 들어서구 야단이라구”라는 순희의 말을 통해 순희의 고향에도 산업화의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기다려도 기다려도」는 197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응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기다려도 기다려도」는 여씨 할머니의 땅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여씨 할머니의 비극적인 삶은 근원적으로 일제의 군국주의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민족의 수난으로 비롯된 개인의 비극에 대해 무관심했던 정부와 이웃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씨 부인의 아들과 며느리까지도 할머니의 비극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여씨 할머니와 같이 식민의 역사로 인한 민족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강제 징용 당한 한국인들이 여전히 조국을 찾지 못한 채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광복 70주년이 지난 현재에도 「기다려도 기다려도

」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교 회

성가를 부르고 있다.
끝나자 흐트러진다.

2. 사 무 실

이 상우 장로, 김 진서 장로, 황 기도 장로가 들어온다.
이상우 상의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앉으시죠.
모두 앉는다.
퀸 집사가 들어온다.
이상우 퀸 집사 그 도면 좀 꺼내 봐요.
퀸집사 예.
도면을 내놓는다.
이상우 (펼치며) 요 옆의 교육관 부지 말입니다. 예정대루 4천
여 평을 1억 5천만원 가량에 매입하는 것을 촉진해 왔는데
요. 하필 저, 그것두 한복판에 있는 땅이 팔쟁이 생겨서요.
두 장로님한테 상의들 드려야겠어요. (도면을 돌려 보
이며)
이상우 팔쟁이 난 집은 요겁니다. 모두 82평밖에 안되는데
이 집에 노파가 한 분 버티고 앉아서요. 죽는 한이 있어두
자기는 여기를 뜰 수 없다,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해두 난
안 떠난다. 버티는 거예요.
김진서 그 이유가 뭔데요?
이상우 그걸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입을 안 열어요.
김진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녜요?
이상우 아들이 있다는데요. 지금 잠실 아파트에 나가 있구

요. 집안 일을 보는 가정부가 하나 있을 뿐! 아주 외롭게
살구 있다는 거예요.
황기도 아들은 만나 보셨나요?
이상우 연락을 해두 만나 보나마나라구요. 숫재 얼굴두 안
봐인답니다.
김진서 거 이상한데…… 가 보실까요? 지금.
이상우 가보시죠. (일어나며) 좌우간에 이것이 마당 끝이라
거나 그렇다면 천천히 해결을 볼 작정으루 탄데 정지 작업
을 시작 하겠는데요. 한복판이거든요.
황기도 가 봅시다. 우리.
모두 나간다.

3. 여씨네 집

아담한 구옥, 낡았으나 뼈대 있는 집이다. 하녀 순희가 마
당 복판 수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소리가 난다.
이상우 (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순희, 여씨 할머니를 돌아본다. 문간방에 단정히 앉아서
아무것도 못 들었다.
이상우 여보세요. 문 좀 열어 주세요.
순 희 (크게) 할머니, 누가 왔나봐요.
할머니 누구?
순 희 문 열어 줘요?
할머니 잠실 아이가 왔나?
순 희 아닌가봐요. 목소리가……
할머니 그럼 누가 날 찾아올 사람이 있어?
순 희 하여튼 열어 줄게요.

나간다.

할머니 내다본다. 70이 넘는 새하얀 할머니다.

이 장로 일행이 들어온다.

이상우 할머니 죄송합니다. 요 열 교회에서 왔어요.

할머니 (순회보고) 뭐라구 그러니?

순 회 요 열 교회에서 오셨대요.

할머니 무슨 일루?

이상우 땅 좀 불러주세요.

할머니 뭘 봐?

이상우 땅요. 맥의 이 땅……

할머니 그건 봐서 뭘 해……

이상우 할머니. 얘기 들으셨겠지만요. 우리 교회가 여기다가
교육관을 지어 가지구 주일 학교를 할려구 그래요. 뭐 요
리점을 짓는다가나 잡스러운 일을 하려는게 아니니까요.
웬만하면 저희들한테 팔아 주세요.

할머니 주일학교?

이상우 예 주일학교입니다.

할머니 (고개 저으며) 그런거 지어서 뭘 해?

이상우 아 젊은 신자들 많이 길러내면 그만치 세상이 좋아질
꺼 아닙니까?

할머니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내가 여기서 50년을 살아오
면서 다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두 안 믿는 사람두 그렇
구…… 클러먹은 사람은 클러먹은 사람이지 별 수가 없어.
안 팔아……

이상우 이렇다니까요.

황기도 할머니,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두요. 예수를 믿는 사
람들은 나쁜 짓 못하는 법이에요.

할머니 하나님 믿을 때는 믿구 나쁜 짓 할 때는 또 하던데……

김진서 안 그래요 할머니……

황기도 오해십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을 저으며 일어나 나오며) 그렇구 안그렇구 왜들
와서 이러나…… 나 조용히 있게 가요. 그만 나 예수 안
믿어.

마당 끝으로 간다.

서로 바라보며 실망하는 세 장로와 권 집사.

권집사 도저히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김진서 아들을 만납시다 우리.

권집사 거기두 영…… 저 할머니 고집을 꺾을 길이 없다가구
그러던데요.

황기도 그래두 거길 함락시키는 게 낫지. 저양반 하군 얘가
가 안되겠는데……

이상우 할머니 실례했습니다. 또 뵈겠어요.

돌아다 보지도 않는 할머니.

저쪽에 비는 변화가의 빌딩.

3.1 빌딩.

김진서 뭔가 이유가 있는거 아냐?

4. 아파트 응접실

좁은 면적에 그렇게 호화롭지 않다.

이 장로, 김 장로, 황 장로가 와 있다.

허 부인이 차를 가지고 온다.

이상우 아이 죄송합니다.

허부인 주인이 지금 들어오구 있어요.

이상우 감사 합니다.

김진서 부인계선 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종로 뒷골목에

기다려도 기다려도 221

계시는 할머니께서……

허부인 집을 안 내놓는 까닭 말씀이죠?

김진서 네.

허부인 (웃으며) 저희 집안에서는요, 그 어머니 애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황기도 엄하신가요?

허부인 엄하시기도 하시구요. 아주 특이하셔요. 자기 고집하는 건 누가 뭐래두 좀처럼 굽히지 않으셔요.

이상우 돈을 많이 벌으시겠다는 건가요?

부자소리

허부인 아 오는군요. (나간다)

오 재건이 들어온다. 까다로운 얼굴이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

이상우 교회에서 왔습니다.

명함을 모두 건넨다.

오재건 앉으시죠.

모두 앉는다.

오재건 무슨 일루……

이상우 우리 교회가요 교육관을 질러구 하다 보니까 매지가 필요해서요. 옆으루 눈을 둘러다보니까 맥을 중심으루 한 일대를 샀으면 해서요……

오재건 우리 어머니하구 일단 교섭이 제쳤잖았습니까?

이상우 그런데 영……

오재건 저두 어쩔 수 없읍니다.

모두 긴장한다.

오재건 어머니은 고집을 가지구 제세요. 제가 아무리 꺾으려 해두 막무가내이십니다.

황기도 왜 그러실까요. 거기가 말하자면 변화가의 뒷골목 아

222

니겠어요. 좁은 골목으루 들어가서 막다른 뎀데. 교통소음 등으로 어디 교외루 빠져 나오십적두 한테요.

오재건 제가 자식입다. 근대화 물결에 성화가 나서요. 거기 보세요. 얼마나 주변이 복잡하구 시끄럽습니까? 몇 번이나 나가십시다, 나가십시다. 해두 영 고개를 저으시길래요. 보시다시피 우리끼리만 이렇게 빠져 나와 삽니다.

김진서 재산을 안 내놓으시겠다는 건가요?

오재건 그 양반 재산 욕심 없어요. (쓸쓸히) 누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상우 누굴요?

오재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루 못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방 후 몇 해가 됐습니까? 32년 아니겠어요. 처음 십 년은 그렇다구 하구요. 20년이 지났을 때는 혁명을 두 번 치렀구요. 30년을 넘어섰을 때부터 서울 모양이 옛날을 몰라볼 정도루 달라졌는데…… 저 양반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기다리구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황기도 그게 누굽니까? 도대체.

오재건 6.25 때두 그 자리에서 꼼짝두 안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천하에 돌도 없는 불효자식 노릇을 하구 있지요……

김진서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오재건 …… 있습니다.

5. 골목안 삼거리

한 평도 될까 말까한 구멍가게가 골목의 옆구리에 붙어 있다. 건너편에는 복덕방이란 간판. 70 노옹이 아직도 쟁쟁

기다려도 기다려도 223

하니 아이스케익을 내주고 있다. 네 여섯 살 먹은 소녀 20원을 내준다.

전노인 하나면 돼. 들이야 이걸……

꼬마 하나 더 달라고 케익 통을 가리킨다.

전노인 하나 더 달라.

꺼내서 준다. 소녀 받아서 뜯어 먹는다.

할머니 여씨가 나타난다.

할머니 꼬마 상대루 재미 보구 있군 그래.

전노인 나왔수?

할머니 하두 심심해서……

전노인 앓구로.

재수생 두 명이 온다.

재수생A 할아버지 담배……

10원을 쟁그렁 내 놓는다. 싼 담배 한 개피를 내준다. 그 자리에서 성냥불을 켜 붙이는 재수생.

재수생B (주머니를 뒤지며) 어…… 아까 남았었는데……

재수생A (담배를 물고) 잘 찾아봐.

재수생B 어, 여기 있다. 할아버지……

김 노인 무표정하게 담배를 꺼내 준다. 불을 붙여 물고 가는 두 재수생.

할머니 재들두 학생인가?

전노인 학생은 무슨 놈의…… 대학두 못 들어가구 학원 다닌

다구 처렇게 왔다 갔다 하는거지 뭐……

할머니 저희 집안에선 다 그래두 귀여운 자식들일텐데……

전노인 귀엽긴! 요즘 젊은 아이들 다 틀려 먹었어. 옛날처럼 예의를 아나 공부를 열심히 하나…… 술 처먹구, 담배 피구 아 내가 이른 살인데 지금 봤잖아? 눈 하나 까딱 앓구 내 앞에서 담배 피워 불잖아.

224

할머니 (쿵 질르며) 저기 뭐 달래요.

어떤 부인이 와 있다.

부인 가져왔어요?

전 노인 조그만 상자에서 5백 원짜리 한 장과 통장을 꺼내 준다.

부인, 도장을 찍어 주고 돈을 백에 넣고,

부인 가요.

간다.

할머니 뭐야 저건?

전노인 일수놀이……

할머니 동리 심부름 다 해 주는구먼.

전노인 안다구 와서 부탁하는 걸 어떻게.

너절한 차림의 여학생들이 지나가며 재잘거린다.

할머니 재들두 재수생인가?

전노인 그럼 뭐 대학 다니는 아인줄 알었어?

할머니 요센 통 학생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겠더라……

전노인 젊은 것들 세상이야. 아무것도 안비 그것들 눈엔……

황 장로가 올라온다. 놀란 눈치로 두 노인을 보며 지나간다.

할머니 이 안에두 저런 신사가 사나?

전노인 요세 옷가지구 사람 알 수 있어?

할머니 그렇지 참?

전노인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

황 장로 도루 온다.

황기도 말씀 좀 문겠읍니다.

전노인 (쳐다보지도 않고) 예……

황기도 요 근처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전노인 왜요? 살라구요?

황기도 예 맞으면 좀 살라구?

기다려도 기다려도 225

전노인 거 보이더니 궁하게 살지는 않는 모양인데 웬만한 사람들 못 들어와 삽니다.

황기도 왜요?

전노인 토백이 사람들 집 다 팔구 조용한테루 다 떼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장사관계루 할 수 없이 뜨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황기도 그렇게 되나요?

전노인 잘못 왔수다. 판 데 가 보세요.

황기도 여긴 재개발치구요?

전노인 아베요.

황기도 아니 도심지 아닙니까? 조 앞이 바루 종로 변화간데 이렇게 낡은 집들을 그냥 돌리가 있나요. 헐어서 현대식으루 지라구 할텐데요.

전노인 아베요.

황기도 이렇게 골목이 좁아두요?

전노인 저 뒤루, 화신 뒷쪽에서 낙원동 쪽으루 큰 길이 난다군 그럽디다.

황기도 그래요…… 어디 하나 구했으면 좋겠는데……

순경이 올라온다.

조순경 복덕방 할아버지 계십니까?

전노인 난데요……

순 경 아 그러세요. (경례를 붙이면서) 저 이번에 이쪽 관내루 부임해온 조 순경입니다. 소장님께서 제일 먼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구 오라구 하시더군요.

전노인 잘 하슈.

순 경 잘 부탁드립니다. 이 근처가 하두 복잡한 것 같아서요.

집이 우선 나은군요.

김진서 겁날 거 뭐 있수.

226

순 경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례 한다)

전노인 잘 해 보슈.

순 경 또 찾아 뵙겠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올라간다.

황기도 호호…… 터춧대감이라고 인사 왔나?

할머니 애송이가 이 근처 사정 알자면 한참 욱불거여. 대학 공부 보다두 어렵다구 여기……

전노인 호호……

황기도 할아버지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전노인 한 50년 되죠?

황기도 아이구 환하시겠네요.

전노인 그래서 말씀인데 판 데 가서 찾아보슈. 여긴 아예 땅사러 오지 말아요.

황기도 저 쪽 교회 옆으론……

하는데 꼬마가 나타난다.

꼬 마 할아버지 나 껌……

전노인 껌?

준다.

꼬 마 (돈을 주며) 됐죠?

전노인 됐어.

꼬 마 간다.

전노인 (황 보코) 아직도 안 가셨수?

황기도 요렘에 한 번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간다.

전노인 열빠진 녀석 같으니라구' 어디 와서 땅을 찾아……
않는다.

할머니 당체 옛날 사람들 같지가 않구 말이야. 엉뚱하구 경솔하구……

기다려도 기다려도 227

전노인 모두 저만 잘 낫다구 그러구……
 할머니 (일어나며) 아이구 재밌다. 난 이렇게 영감 한번 만
 나구 가면 그 날은 큰일 치루고 들어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구요.
 전노인 벌써 가?
 할머니 가봐야지. 또……
 전노인 자주 놀러 나와요. 심심해 죽겠어.
 할머니 예.
 내려간다.

6. 여씨네 집

허 부인이 와 있다.
 순희 고사리를 행구고 있다.
 허부인 애 순희야! 후 이 옆 교회 사람들 안 찾아 왔었니?
 순희 찾아 왔었어요.
 허부인 할머니 뭐라시든?
 순희 뭐, 맨날 똑 같은 말씀이죠.
 허부인 안파신다는거지?
 순희 예.
 허부인 이 세상에 그 낭만 고집을 꺾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겠다. 애.
 방을 들여다 본다. 옛날식 경대 위에 딱 세워진 사진틀.
 일제 학생복 차림의 오 재성이 활짝 웃고 있다.
 허부인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아직두 기다려
 시다니……
 하고 돌아보는데 할머니가 돌아와 있다.
 할머니 뭘 혼자 중얼거리니?

228

허부인 아네요.
 일어난다.
 할머니 앉아라.
 허부인 예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할머니 세상 구경 좀 하구 왔다. 애비두 잘 있니?
 허부인 예.
 할머니 그래…… 왜 왔어?
 허부인 어떻게 지내시나 가보라구 그래서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긴…… 내가 뭘 별일 있을까 봐서.
 허부인 반찬거리 뭐 고기같은 거 좀 사다 드릴까요?
 할머니 고기 안 먹어. 난 풀만 먹지. 짐승 살 안 먹어.

7. 교회 사무실

이상우 아니 그 아들까지두 원인을 안 밝혀 주는데야 호소가
 있어야죠.
 황기도 내 생각엔요. 저 위 골목에 있는 부덕방 할아버지 하
 구 굉장히 뜻이 맞으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 가지구 접근해 보는게 첩경이 아닌가 하는
 데요.
 이상우 부덕방 할아버지?
 권 집사가 들어온다.
 권집사 할머니네 집에 웬 여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상우 누구야 그게?
 권집사 아마 그 댁 며느리가 아닌가 하네요.
 황기도 잠실에서 만난 그 분 같으면 뭔가 얘기해 줄 것 같은
 인상이던데……
 이상우 가 봅시다. 우리.

8. 여씨네 집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 있다.
 더느리가 호박을 잘라 주고 있다.
 할머니 새우젓 넣어 가지구 말야. 네 숨쉴 있잖니 왜……
 허부인 해 드리구 갈께요.
 할머니 애비 수입은 어떠냐 요새?
 허부인 따분한가봐요. 은행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요.
 할머니 왜 빚을 지구 사노. 그냥 저냥 지내지……
 허부인 아 이웃 사람들 집 잘 짓구 자가용 몰구 사는거 보면
 그냥 저냥 살 수 있어요? 욕심 부리게 마련이죠.
 할머니 남의 집은 반대라구 하더라만…… (사진을 보고) 재
 는 욕심이 없었는데. 너희 집 애빈 안 그랬어.
 이 장로와 황 장로가 들어온다.
 황기도 실례합니다.
 순 희 어디서 오셨어요?
 황기도 요 옆……
 순 희 할머니……
 허부인 오셨어요?
 황기도 또 뵙겠습니다.
 이상우 할머니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루 오셨수?
 이상우 아 할머니 이 땅만 파시란 소리 안 할께요. 뭐가 고
 민이세요?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나서겠습니다.
 할머니 …… 저 양반은 저쪽 북덕방에서 빈 분이로구먼……
 황기도 예 거기서 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안팔아……
 이상우 안파서두 좋은데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
 으실 거 아녜요?
 할머니 그 이유를 남한테 얘기해서 뭘 허우.
 이상우 누가 알아요. 또…… 도움이 꽤 드릴 수 있을는지…
 할머니 당신들은 상관 없는 일이야. 나밖에 상관할 필요가 없
 어.
 이상우 이 주변집 모두 사들였거든요. 땀 돌아가면서 모두
 헐구 큰 집을 지을겁니다.
 할머니 지으시구료.
 이상우 공사를 시작하면 굉장히 시끄럽구 몬지두 납니다.
 할머니 할 수 없죠.
 이상우 나중엔 할머니 집이 교회 한복판에 땡그란히 납습니다.
 할머니 그래두 예수 안 믿어요.
 이상우 저희들 원망하셔두 모릅니다.
 할머니 내가 왜 남을 원망해…… 안하지…… 내 자식이 섭섭
 한 것을 해두 안 하는데……
 황기도 아이구 할머니…… 왜 그러세요? 여긴 골목 막다른
 테라요. 소방차두 못 들어오구 저 종로 북덕거리는 거리가
 몇 메타나 됩니까? 바루 조기 아녜요? 왜 이런데 사십니
 까? 장사꾼이나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사는데 아녜
 니까?
 할머니 설교들 잘 하겠군. 가 보셔……
 이, 황 어이가 없다.
 허부인 가 보세요.
 이상우 에이구 실례 했습니다. (간다)
 황기도 할머니 또 찾아 뵈겠습니다. (간다)
 할머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희들을 만나…… 재성이라면

기다려도 기다려도 231

모를까……

허부인 어머니 아직두 그 되련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참 쏘아 보다가) 그럼 될 생각하란 말이냐?

허부인 30년두 더 넘잖았어요. 어머니……

할머니 (조용히) 가 봐라.

허부인 살아 있는 자식들 걱정두 좀 해 주셔야죠.

할머니 (발끈) 누군 죽었다던? 아 우리 재성이가 죽었대?

허부인 ……

어서 가, 쓸데 없는 소리 말구……

9. 회 사

엄격호가 어음을 내동댕이치며 소리소리

엄격호 (평안도) 아 기래 내일 내일 밀려온거이 한두 번이야.

석 달 참아 줬으면 요즘 세상에 무던히 참아준 거 아냐?

이놈의 어음은 뱃때때 끊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뵈냐.

맛 좀 뵈주잔? 맛 좀 뵈줘야 알잖어?

오 재건의 떡살을 잡는다.

오재건 (조용히) 미안하우 엄형.

엄격호 내 성 부르지 말어. 당신 목소리까지 듣기 싫어. 이젠

돈 내봐! 돈 내봐!

오재건 글썽 내가 안 내논다는거 아니라 일이 그렇게 되잖

았수…… 들어올거 없는데 엄형 것을 미룬다면 내가 도둑

놈이지. 있잖아,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나두 막힐 수밖에…

엄격호 수백 만 수천 만 받을 것 있어두 나하군 상관 없다구.

이것만 결제해 내라우 단돈 3백 만원이야. 3백 만원두 못 꾸

려대면서 사업한다구 나섰어. 사업판이 얼마나 무서운 판

지 몰랐어. 사람 이케 웃기지 말라우요.

www.kci.go.kr

오재건 넝넝 잠구 그저 일 주일만 좀……

엄격호 당신 오마니가 종로바닥에 땅 개지구 있다구 안 그랬

어. 요새 글씨라기 같은 땅값인데 한 덩어리 슬쩍 팔면 이

것 좀 문제가 아니잖아.

오재건 우리 어머니 좀……

엄격호 당신 이렇게 나오면 난 간다구. 간다구 난

획 나간다.

10. 아파트 응접실(방)

우울하게 앉아 있는 허 부인

말없이 소주를 마시는 오 재건

허부인 빛 안지구 사업 좀 할 수 없어요? 옆에서 보구 있

면 맘이 조마조마 해서 적게 받드라도 월급쟁이 신세가 부

러워져요.

담배를 피워대는 오 재건

허부인 그 엄선가 누군가 전화 말투부터 악이구…… 소름이

좀 끼쳐요.

오재건 왜 이렇게 자꾸만 지겨려?

허부인 어머니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던지 하란 말예요. 그

냥반 거기 뿔허러 혼자 남아서 버티시는 거예요…… 자손

들한테 물려줘서 한 푼이라두 보태 쓰게 해 주시던지 하실

것이지……

오재건 그 냥반 성미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거야?

허부인 내가 내일이라두 가서 말할테니까 (일어난다)

오재건 왜 남의 약을 올리구 이래? (꽤) 가만 있어 좀!

11. 여씨네 집 (밤)

종로 뒷골목의 소음.

방에 누워 있던 할머니가 마루 끝으로 나온다.

순희가 누워 있다.

할머니 애, 들어가자……

순희 안자요.

할머니 안자면 왜 그러구 있니?

순희 괜히 이것 저것 생각이 나서 그래유.

할머니 나하구 들이 사는게 심심해서 그러냐?

순희 (일어나며) 할머니 나 집에 가구 싶어.

할머니 또 그 소리……

순희 이번엔 정말이야. 요전에 내 친구한테서 편지 오잖았어? 무슨 공장이 들어서구 야단이라구 안 그랬어?

할머니 너두 그대 공장에 가구 싶다는 거여?

순희 공장두 공장이지만 내 동생들 만나구 싶어서 그래. 엄마가 불쌍하거든. 내가 서울 와서 돈 벌어서 보낸다구 큰 소리 치구 왔지만…… 언제 큰 돈 보낸 적 있어?

할머니, 부체질을 하며 밤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다.

순희 동생들 생각이 날 때는 막 미치겠어. 금방이라두 서울 역으루 달려가구 싶거든.

할머니 그렇게 가구 싶으냐?

순희 응…… 할머니께 못 가는 거야.

할머니 내 걱정 말아라.

순희 예? 이렇게 아무두 없이 혼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

할머니 또 누굴 구해야지.

순희 누가 있어. 나니까 할머니 모시구 있는 거야. 요즘 아이들 답답하면 금방 달아난다구……

할머니, 돌아본다.

순희 요즘 아이들 내일은 상관 안한다구…… 하구 싶은 것 하구 가구 싶은 때 간다구……

할머니 (물끄러미 보다가) 넌 다 알면서 왜 내 옆에 붙어 있니?

순희 할머니가 불쌍하구 어쩐지 정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있어야지……

할머니 고맙다.

순희 고맙긴……

할머니 늙으면 자식두 소용 없는 거여.

순희 그래두. 잠실 신우 아빠는 효자 아냐?

할머니 효자면 뭘하니…… 내가 이 집에서 안 나가겠다는 까닭을 알면서두 저희들끼리 편하게 살구 싶으니까 나갔잖았니?

순희 또 그런 소리 하신다.

할머니 그 애보다 우리 저 아이…… (사진을 돌아보고 울먹하며) 진짜 진짜 효자지.

순희 들어가서 사진들 꺼안구 또 주무세요. 그럼……

할머니 그런데 세상 인심이 왜 이러냐? 30년이 지났는데 두 내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 한 장 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왜 이러냐?

순희 하아이 또…… 어서 들어 누우셔야겠어. (일으킨다)

할머니 간신히 일어난다.

방으로 들어간다. 펴 있는 요 위에 눕는다. 순희가 재성의 사진을 팔에 누여 준다.

글썽한 눈을 조용히 감는 할머니.

12. 골목안 삼거리

재수생들이 오간다. 담배 한대 파는 전 할아버지.

황 장로와 권 집사가 온다.

황기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냉담하게 돌아본다.

황기도 요 전에 왔던 사람입니다.

전노인 (아는지 모르는지) 예……

황기도 할아버지 시간 좀 만나세요?

전노인 무슨 시간요?

황기도 좀 어디 나갔다 오실……

전노인 그런 시간 없어요.

황기도 아니…… 온 종일 여기만 붙어 계십니까?

전노인 여기서 밖으로 나간 일이 없어요.

앞전한 국민학교 소녀가 와서 아이스크림 박스를 가리킨다.

전노인 몇 개?

한 개를 꺼내 준다.

소녀 손가락을 두 개 내민다.

전노인 하나 더?

꺼내준다. 동전을 받는다.

소녀 돌아서서 얇전히 껍질을 벗기고 빨기 시작한다.

황기도 한 번 모시구 조용히 말씀 좀 듣구 싶어서 그래요.

전노인 나 안나가요. 아침에 나오면 밤 10시까지 요기만 있

지 판 데 갈 사이 없어요.

황기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전노인 안 답답해요. 세상에 나가 봤자 별루 구경할 것두 없

는 걸 뤘.

황기도 지독하시네요. 앉으세요 좀……

나무 의자에 앉는다. 앉는가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빗자루를 가게 위로 집어 던진다.

황기도 왜 그러세요?

전노인 쥐새끼가 나와서 세상 구경을 할라구 들어.

황기도 허허…… 할아버지 일흔이 넘으셨어두 근력은 젊은사람 못지 않으신가 봐요.

전노인 늙어서 다 틀렸어요. 이제

황기도 아 우리 젊은이두 못보는 쥐새끼를 어느 사이에 보셨으니……

전노인 그런 것두 못 보면 빗허라 이런 데 나와서 소일해요.

재수생 하나가 와서 돈 먼저 딱 놓고 담배 꺼내서 이겨에요 보이고 간다.

황기도 저거 무슨 담뱃니까?

전노인 비싼 거 아녜요.

황기도 한 개피만 사서 피우나요?

전노인 저희들이 무슨 돈이 있나.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구 간신히 학비랍시고 보내 주면 밥 사먹구 차타구 월사금 내구 무슨 돈이 있어. 저 지경들이지……

황기도 네 (고개를 끄덕이며) 참 재미있네요.

전노인 저래가지구 잘 되면 모르지만 안되는 날이면 저희 애비 못살게 하구, 제 신세 망치구, 나라 망치구…… 조 밖에 나가면 개미떼 처럼 바글바글 해요.

황기도 할아버지. 한 가지 간곡하게 청을 넣어야 할 게 있는 데요……

전노인 나한테 무슨 청이요?

황기도 요 전에 여기 오셨던 그 할머니 말씀이에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237

전노인 (뻔히 보다가) 전 왜 물어슈?

황기도 그 할머니 참 품위 있구요. 보통 분으루 안 비던데
요…… 이 동리 사시나요?

전노인 저쪽 교회 옆에 살지.

황기도 뭘 하시는 집안일까요?

전노인 옛날엔 벼슬 꽤나 하던 집안인데…… 지금은 다 시들
었죠.

황기도 그래서요?

전노인 노인 혼자 살어.

황기도 혼자? 자제들은 다 어떡하구요?

전노인 하나는 저 잠실 아파트가 살구 하나는 죽구……

황기도 죽다뇨?

전노인 일제 시대에 그 놈들이 한참 병정이다, 징용이다 할 때
끌려 나간 채 그만이야.

황기도 그래 죽었어요?

전노인 죽었길래 여태까지 안오지 32년이 지났는데 왜 소식
이 없어.

황기도 호오…… 할머니두 그렇다는 걸 아시나요?

전노인 그 낭반은 안 믿어. 지금두 어디 살아 있을 거라는 거
야. 새파란 청춘에 가서 수염이 허형게 늙었겠지만 그래두
어디 살아 있을 거라는 거야.

황기도 하하

전노인 주위에선 다 미쳤다구 그러지. 당신은 주위 것들이
미쳤다구 그러구.

황기도 왜요?

전노인 세상이 이게 어디 온전한 세상이냐는 거야.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게 뭐냐— 마음가짐이요, 몸가짐인
데…… 외양은 모두 번지르르 해졌지만, 마음은 썩어 버렸

238

다는 게지. 온전한 사람은 자기하구 나밖에 없다는 게지.

황기도 할아버진 점수 따셨네요.

전노인 점수 잃을 짓을 뭐 한 적이 있어야지.

황기도 예 예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

일단의 재수생 아가씨들이 재잘거리며 지나간다.

청 년 할아버지 한산도 한 갑만 주세요.

전노인 한 갑은 안 팔어.

청 년 왜요?

전노인 전매청에서 허가를 안 받았어.

청 년 에이…… 참

가버린다.

전노인 너서 한 푼두 못내는 주제에 한 갑은 무슨놈에 한 갑이
야……

황기도 허 허……

조 순경이 온다.

조순경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전노인 요 전에 인사 왔던 분이신가요?

조순경 예, 그렇습니다. (쪽지를 내 보이며) 이 집안 사정
잘 아세요?

전노인 건너방에 술집에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 집인데……

조순경 네, 그 아가씨들 때문에 왔는데요.

전노인 따라 오슈.

황기도 할아버지 잠깐만……

전노인 갔다 올게요. 바쁘지 않은 일이거든 이 댁에 오구요.

가 버린다.

황기도 쿵 집사, 이 낭반한테 사정해야겠지?

권집사 제일 낫겠는데요.

황기도 나중에 밤 열시 넘어가지구 와서 간곡하게 사정해 보

라구!

13. 여씨네 집

할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옛 한문 책을 들쳐 보고 있다.

순희가 걱정스러운가 보다.

순희 할머니. 웬분이 찾아 오셨는데요?

할머니 날 누가 찾아와?

엄격호가 나타난다.

엄격호 저 오 재건 씨 친구외다.

할머니 재건이 친구가 나한테 무슨 불일이 있어서 왔어?

엄격호 뭇 좀 여쭙 봐야 될게 있어서요.....

할머니 난 몰러.....

엄격호 재건 씨가 큰일 날 일을 저질렀어요.

할머니의 눈이 약간 빛난다

엄격호 (어음을 꺼내 보이며) 이 어음으로 사업자금을 좀 돌려 달라기에 어디서 꺾겼더니 기한이 석 달이 넘었는데도 결재를 안해 주구 있어요. 그래서 찾아 왔어요.

할머니 그 애한테 가서 얘기 해요.

엄격호 얘기 하다 하다 못해 할 수 없이 오마니를 찾아 뵈었습니다.

할머니 나 돈 없어.

엄격호 종로에 오마님이 큰 땅을 개지구 있다구 자랑을 하더군요.

할머니 (눈을 부릅뜨며) 우리 큰 애가?

엄격호 예.

할머니 이걸 우리 작은 애 목이며. 나하구 상관 없어. 그 애두 상관없어. 그런 얘긴 나한테 와서 하지 말어. 순희야 저

손님 내 보따구 문 잠가라.

순희 예.

엄격호 이케 되면 큰 아드님 다칩니다.

할머니 어서!

엄, 할 수 없이 나간다.

14. 아파트 응접실(밤)

엄이 들어온다.

허부인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엄격호 부인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

엄격호 내 웬만하면 오형한테 심하게 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 번엔 버릇을 고쳐 돌려구 기럽베다. 종로 오마니를 찾아 뵈구 왔지요.

허부인 어머, 왜요?

엄격호 돈 갚아주지 않으면 오형 버릇을 고쳐 놓겠다구 기렸어요.

허부인 선생님, 우리 집 그이가 어디 남을 속이는 사람이예요? 착하디 착해 빠져서 남한테 받을 건 심하게 애걸 못하구 줄진 몰리구.....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한테..... 우리두 신경이 썩어져서 함부루 말씀 못드리는 분이예요. 거기 가서 그런 지저분한 말씀을 드리면 어떡해요.

엄격호 나로선 최후의 수단이에요. 오형 민구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E) 부자 소리.

허부인 나간다.

오 재건이 들어온다.
 허부인 글썽. 종로 어머님을 찾아 뵈대요.
 오재건 뭐라구?
 두 눈에서 불이 난다.
 다가온다.
 엄격호 어캐 주셨어? 난 이제 수단 방법 안 가릴 테니까...
 오재건 차라리 날 고소하라구.....
 엄격호 말 했어.
 일어난다.
 오재건 왜 늙은 양반을 찾아가서 괴롭혀?
 엄격호 (손가락으로 쏘듯이) 당신 말 했어. 이렇게 말 했어.
 후회하디 말라우요!
 나간다.
 머리를 쥐어 뜯는 오 재건

15. 여씨네 집

M 라디오에서 대중 가요가 흐른다.
 마루 끝에 나와서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는 할머니.
 고층 빌딩의 전깃불이 여기저기 환하다. 라디오를 귀 옆에
 대고 누어 있는 순희.
 할머니 자나? 순희야!
 대답이 없다.
 다리를 흔든다.
 순 희 예?
 할머니 너 좀 일어나거라.
 순희 일어난다.
 할머니 (동전을 두 개 주며) 너 나가서 잠실애다가 전화 걸

여가지구 오늘 아무 일 없었냐구 좀 물어 봐라.
 순 희 이렇게 늦게요?
 할머니 그래두 할 얘긴 해야지. 어서 좀 갔다온?
 순 희 또 할 얘기 없어요? 아주 한꺼번에 다하구 오게.....
 할머니 애비 좀 네일이나 모레 바쁘지 않을 때 우리 집에 좀
 들리라구 그러구.....
 순 희 오늘 아무일 없었느냐? 애비 좀 바쁘지 않을 때 들려
 라 그러면 되죠!
 할머니 그래.
 라디오를 끈다.
 교회 코러스가 들려온다.
 순 희 어머, 교회에서 합창하는 걸 몰랐네. 다녀올께요.
 할머니 종로루 나가지 말구 곧바로 돌아와라.
 순 희 예.
 코러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 같다.
 할머니 방 안의 사진을 본다.
 들어간다.
 한참 드려다 본다.

16. 아파트(밤)

쇼파에 누어 있는 재건, 허부인이 전화를 받는다.
 허부인 그밖에 딴 말썽은 안계시구? 응..... 애애 혹시 그
 사람이 와서 행패는 안부렸니? 되려 쫓겨났어? 우리 집에
 그래서 왔구나. 알았어. 잘 모셔라. 너 착한줄 우리두 알
 구 있으니까..... 끊어 그만.....
 오재건 왜 그래?
 허부인 어머님이 당신 오시래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243

오재건
허부인

17. 사 무 실(밤)

권 집사가 전 할아버지를 안내한다.
 권집사 앉으시죠.
 전노인 (앉으며) 설마 나더러 예수 믿으라는 건 아니겠죠?
 권집사 믿으시면 더욱 좋지만요. 그런 뜻에서 모신 건 아닙니다.
 여사원이 차를 탄다.
 권집사 드시죠 차.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나간다.
 여사무원 드세요. 할아버지.....
 전노인 (차를 들며) 이 교회가 참 오래 된건데.....
 여사무원 네, 오래 됐네요.
 이 장로와 권 집사가 들어온다.
 이상우 아이구 선생님 이렇게 오시라구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노인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을 빙하러 부르셨어요?
 이상우 넌 나가서 일 봐.
 여사무원 나간다.
 이상우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인입니다. 어떻하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민에게 고루 나눠 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씩씩한 표정이다.
 이상우 단도직입이루 말씀드리죠. 저희들 사업을 좀 도와주세요. 저기 바깥에 교육관 짓는 사업 아시죠?

244

전노인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우 70년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일 잘 아시죠?
 전노인 알지요.
 이상우 그 땅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드리겠어요. 그 옆의 땅보다도 더 드리겠어요. 할아버지한테 수수로두 듬뿍 드리겠습니다. 좀 중매해 주세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전 할아버지
 이상우 부탁입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서요. 큰일 났습니다.
 전노인 장담 못합니다.
 이상우 할아버지께서 해 주시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젠.
 전노인 (코개를 쳐으며) 나하구 친하게 베푸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분에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있어요.
 이상우 뭘니까 그게?
 전노인 둘째 아들입니다.
 이상우 전쟁에 가서 안 돌아 왔다는.....
 전노인 예.
 이상우 전사 하잖았습니까 그 분은.....?
 전노인 할머니는 전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이상우 선생님, 그게 언제쯤 애깁니까? 선생이 40대 되실 때 애기 아십니까? 저희들은 아직 20대구요. 그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아드님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노인 할머니두 그렇게 믿게 됐죠. 전사 통지서를 받았나 누가 죽는 걸 봤다구 그러나..... 멀쩡한 얼굴루 끌려갈 때 얼굴, 그것 밖엔 모르거든요..... 안 죽었다구 생각할 수도 있잖습니까?
 이상우 예.

기다려도 기다려도 245

고개를 끄덕인다.

전노인 더군다나 그 아이를 제일 귀여워 했거든요. 아이가 또 그렇게 착했어요. 공부도 잘 하구요. 장로님 같으면 아무 소식도 없는데 죽었다구 묘 쓰시겠어요.

이상우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려야 겠군요.

전노인 예?

이상우 아드님을 만나보실 길이 꼭 하나 있습니다.

전노인 어디 있어요?

이상우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깨달으셔야겠어요.

전노인 약간 호기심이 생긴다.

전노인 나오면 뭐가 좀 달라 질까요?

이상우 하나님하구 통화하시게 되십니다.

전노인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이상우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어디 저 하늘 꼭대기나 산봉우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 계시니다.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자기 마음 속에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노인 ……

이상우 성가가 들려온다.

할아버지, 할머니 땅 우리가 필요한 것두 사실이지만,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사시는 허물없는 마음을 그 죄없는 송고한 어머니 마음을…… 우리가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세상살이에 깨달음이 계시니다. 할아버지도 나오세요. 할머니와 두 분이서 나오세요. 모든 욕심 모든 유희 다 잊어 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즐기시게 해 드릴게요.

손을 꼭 잡는다.

246

고개를 조용히 숙이고 생각에 잠기는 할아버지

18. 종 로

오 재건이 힘없이 걸어온다.

Y.M.C.A 옆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미떼 같은 재수생들, 그 속을 헤치고 들어가는 재건.

19. 골목안 삼거리

재수생들이 지나간다.

할아버지 아이스케익을 받아 놓는다.

배달원 안녕히 계세요. (간다)

재건이 나타난다.

오재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전노인 자네가 웬일이여?

오재건 어머님한테 가는 길에 할아버지두 찾아 뵈고 싶어서요.

전노인 여보게, 예나 지금이나 효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저 서양놈들은 쌍놈들이야. 뭐 빌딩만 올라가면 제일인가. 기술만 배우면 제일이야? (가슴을 두드리며) 이 가슴 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가 문제라구. 쌍놈들 배우지 말게 자넌.

오재건 예……

꼬마가 와서 과자를 가르킨다.

전노인 뭘 달라는 거야.

꼬 마 조겨.

전노인 이거?

꼬 마 아-니

전노인 요거?

꼬마 응.

전노인 드로프스라구 그러면 될거 아냐? 이 사람아 요렘부
더는 드로프스라구 그래.

돈을 받아보고.

전노인 이진 30원야 20원 모자라요.

꼬마 무안한 듯이 도루 내민다.

전노인 이게 꼭 먹구 싶은거지?

꼬마 응.

전노인 그럼 가져가 나중에 가져오면 될거 아냐. (준다)

꼬마 고맙습니다. (조르르 뛰어간다)

오재건 할아버지가 제일이십니다.

전노인 그래서; 어머니 만나뵙구 뭘 할려구 그래?

오재건 그냥 오래간만이니까요. 찾아뵙구 싶어서요.

전노인 이 사람아 싱겁게 그냥 절만 꿈벅하구 가지 말구...

(소리를 낮추어) 내 생각에 자네 동생은 죽은 사람인데...

오재건

전노인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살았다고 생각하나?

오재건

전노인 죽었어, 죽었어. 뼈두 못찾은 왜놈들이 얼마나 되는
지 알아? 부지기수야. 그 속에 끼었을 게야. 그런데 안죽
었다구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지금까지 삼십여 년 동안
을 꼭 참구 말야. 언젠가는 오려니 문짚을 내다보면서 말
이야..... 이것이 에미의 마음 아닌가?..... 이것이 사람의
마음 아냐?

오재건 가슴이 메이는 듯 고개를 숙인다. 재수생이야 지나
가건 말진 열변을 토하는 할아버지.

전노인 재건이 오늘 가서 어머니 얼굴을 자상히 들여다 보게.

이 세상에는 이제 없는 얼굴이여. 판데 가 보게! 모두 욕
침이 더덜더덜 썸이 알루달룩..... 자네 어머니 훌룡하신
줄 알게.

오재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까만셔츠 거복선 담배 주세요.

전노인 거복선은 안 팔어!

까만셔츠 왜 안파요?

전노인 돈 없는 사람만 상대하니까 그렇지!

까만셔츠 아이참 할아버지두.....

간다.

전노인 너석 건방지게 고급 담배만 찾구있어. 그런데 여보게
어머니 잘 달래서 자네 아파트루 모시도록 하게.

오재건 예?

전노인 여길 뜨시면 난 벗이 없어지니까 서운하지만..... 그
래야 되는거야.

오재건 다녀 오겠어요. 할아버지

이노인 가보게

쉴쉴히 바랜다.

20. 여씨네 집

마당의 나무밑의 풀을 뜯는 할머니. 순희가 반색을 하며
들어온다.

순희 잠실 아저씨 오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돌아본다.

오재건 뭘 허세요. 어머니!

할머니 넌 아이가 왜 그렇게 시시하게 세상을 살아가니?

오재건 효전에 누가 왔었다면서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249

할머니 이 집은 네 동생 뚫이야. 그 애가 돌아오면 어디 살라
구 이 집까지 날려 버릴려구 드니?

오재건 아베요.

할머니 안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구 이 늙은이를 찾아왔
니? 니가 자랑했다면서? 종로에 땅 가진게 있단구?

오재건 죄송해요. 어머니.

할머니 내가 쫓겨나는데 문제가 아냐. 조상 대대 살아온 집을
버리는 것두 매수로운 일 아니구..... 재성이가 왔을 때 어
더루 가느냔 말이야? 내가 여기 안 있으면 죽은줄 알구
어디루 가버리면 어떡하니?

오 오 고개를 숙인다.

할머니 (다가오며 울먹하며) 이놈아 너두 나이깨나 먹었거든
철 좀 들어. 내가 여기가 좋아서 버티는 줄 알아? 온갖 잡
스러운 것들 와글거리구 밤낮으루 쓸어두 뒹아두 먼지 쌓
이구..... 내가 그런거 좋아서 여기 있는지 아니? (울며)
재성이 때문이야..... 재성이가 돌아와서 헤멜까봐 그러는
거야.

오재건 어머니!

부들켜 안고 어깨를 들먹인다.

할머니 우리 재성이가 불쌍하치.

오재건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절대 손 안떨베니 여기 계세요.

21. 사무실

오 재건이 엄 격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애원한다.

오재건 엄형. 그 집은 말야 부탁이야. 내가 어떻게든지 이주
일 안에 갚을게 가지 말아 줘요. 늙은 우리 어머니 소원을
풀어 드려야지. 안그러면 내가 큰 죄를 받아.

250

엄격호 그 말 믿어두 좋았어?

오재건 정말이야. 자식을 두구 내가 맹세하겠어. 안할 말루
어디 가서 내가 훔쳐서래두 갚을 거야.

엄격호 알았어. 토요일 열 두 시에 딱 오지. (나간다)

오재건 고마워 엄형.

주저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22. 여씨네 집

이 장로가 와 있다.

이상우 할머니. 제가 또 왔습니다. 오늘은 이 집을 파시라구
권하려 온게 아니구요.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 내가 외롭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소?

이상우 외롭지 않게 해드릴려구요.

할머니 어떻게?

이상우 저희 교회에 한 번만 나와 주세요. 할머니 같은 연세
드신 분은 드름니다만, 자식같은, 손주같은 많은 남녀들이
와서 한가지로 마음을 갖습니다. 나와 보세요. 절대루 실
망하지시지 않으실 겁니다.

할머니

이상우 외로움을 더셔야죠. 괴로움두 벗어 나서야구요.....

할머니 어서 나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23. 교 회

이 장로가 기도를 주재하고 있다. 단상의 그는 한층 위엄
있어 보인다. 할머니가 와 있다.

이상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기다려도 기다려도 251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 전서 제15장 전반을 읽어간다)

경건히 듣고 있는 신도들 어느듯 할머니도 눈을 감고 경창한다.

24. 글 목

할머니가 허리를 꾸부리고 걸어온다.

25. 삼 거 리

할아버지가 없다.
 할머니가 나타난다. 두리번거리나 없다.
 나무 의자에 앉는다. 여학생이 돈을 내 놓으며,
 여학생 껌 주세요.
 할머니 얼마지?
 여학생 40원 여기 나왔잖아요.
 간다.
 할머니 오……
 동전을 한 구석에 잘 둔다.
 꼬마가 “아이스 케익”하고 돈을 내 놓는다.
 할머니 꺼내 가.
 꼬 마 내가요?
 할머니 응. 돈 만큼만 가져가.
 꼬마 박스 뚜껑 열고 꺼낸다.

252

꼬 마 가져가요?
 할머니 응, 응……
 꼬마 좋아라 간다.
 할아버지가 야단을 치며 돌아온다.
 뉘따라 싸롱 아가씨 두 명이 온다.
 전노인 이 동네가 뭐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난장판인 줄 알아?
 아가씨A 아녜요. 할아버지! 우린 그런 짓 안했어요.
 아가씨B 순경이 잘 못 듣구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노인 내가 여기 앉아 있어두 볼 것 다 보구 있는 사람이야. 영성한 것들 말라구……
 아가씨A 안 그래요. 할아버지!
 전노인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산다지만, 너희들 장래를 생각해 다시 나한테 걸리면 없다.
 아가씨A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가씨B 안녕히 계세요.
 간다.
 전노인 (눈을 힐긋하며) 언제 왔어?
 할머니 대신 장사 했다우. 저기 코 묻은 돈 있어요.
 가서 집어 준다.
 전노인 거 상자에 넣어 뉘.
 할머니 마귀 마누라 부러먹듯 하네.
 전노인 허허…… 아 줌 그러던 어때……
 할머니 (돈 상자에 돈을 넣다가) 아니 여기 돈을 그냥 두구 다니면 어떡허우?
 전노인 안 좃어가. 그까짓거 좃어가면 이 장사 벌써 때려치자 여태까지 할 줄 알아?
 할머니 그거 또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기다려도 기다려도 253

전노인 젊은 것들 맨날 욕을 하구 앉아 있어두 그래두 대한
민국에 희망을 거는 건 말야 내 저 돈 상자를 가져가는 놈
이 없다는 것 때문이야.

할머니 거리에선 쓰러꾼두 많타던데?

전노인 (웃으며) 그래두 내건 안가져가.

할머니 거 신통하다.

전노인 그런데 왜 나왔수?

할머니 어제 저녁에 그렇게 오래두 안가던 교회당엘 가 봤
어요.

전노인 갔어?

할머니 고개를 끄덕한다.

전노인 그래 어땠어? 뭐가 이상한 게 좀 있었디까?

할머니 무슨 소린지 하낫두 못 알아 들었는데 그래두 뭘 들은
것 같단 말야.

전노인 그래두 들은 것 같다?

할머니 (싱그레 웃으며) 밤새도록 잠을 못잤수. 이 생각 저
생각 히느라구.

전노인 거 이 장로란 사람 물건이지.

할머니 교육관을 짓는다나 뭘 한다나 첩엔 내 땅 사구 싶어
서 아양을 떠나부다 했더니.....

전노인 그랬더니?

할머니 아닌 것 같더라구.

전노인 (웃으며) 허허..... 이거 우리 동리에 예수쟁이 하나
나타났다.

할머니 둘이여.

전노인 또 누구여?

할머니 손가락으로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전노인 하하..... 이젠 뭐 자기 남편처럼 맘대루 할려구 그래.

254

할머니 호호.....

손가락 질을 하며 유쾌하게 웃는다.

26. 여씨네 집

허부인이 들어온다.

허부인 아니 웬 남자들이 바깥에 서 있니?

순 희 아줌마, 나 무서워서 혼났어요. 옛날 전쟁터에서 아
저씨 하구 같이 있었던 분들이래요.

허부인 아저씨라니.

순 희 아이 할머니가 기다리시는 아저씨 말예요. 저 사진 아
저씨.

허부인 어머 그럼 소식을 안대니?

할머니 애 문 열어.

순 희 오셨다!

쫓아가 문 열어 준다.

순 희 할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셔.

허부인 밖에 누가 서 있잖아요. 어머니!

할머니 아니.....

허부인 이상하다..... 신우 작은 아버지 하구 군대에 같이 있
었던 분들이라구 왔대요.

할머니 뭐..... 왜 냉큼 들어오시라구 하잖구.

순 희 나 혼자 있는데 무서워서 누굴 데려봐요.

허부인 빨리 가봐라.

순희 쫓아 나간다.

할머니 마루에 앉으며 사진을 드러다 본다.

할머니 아니 그게 웬 소리야?

순 희 할머니.

기다려도 기다려도 255

하며 두 사람 데리고 들어온다.
한 사람은 시골 사람 같다.
윤대식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시겠시유. 충청도 사는 윤 대식
이라구 해유.
할머니 웬일이요. 그래
박달군 저하고 이 윤하구 백의 자제님 오 재성이하구 모두 일
제시대에 한 부대에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인 어딴수?
박 어색해지며
박달군 사실은 이 사람이 재성이하구 같은 부대에 있었는데
요. 전투를 하다가 그만……
할머니 어떻게 됐어?
박달군 ……
윤대식 ……
할머니 죽었나?
윤대식 예.
할머니 분명히?
윤대식 예.
할머니 진작 좀 알려 줄 것이지 왜 이제 오나.
윤대식 죄송합니다유, 돌아와서 바루는 괜히 언짢아 하실까봐
못 왔구유 그 뉘엔 점점…… 미안해서 못 왔어유.
할머니 우리 아이하구 같이 있었다는 무슨 증거라두 있나?
윤대식 예…… (봉투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낸다. 그 안에서
사진을 꺼낸다. 내민다. 할머니 눈엔 뿌연다)
할머니 네 돋보기 좀 다우.
얼른 좇어 준다.
순 희 옆에 할머니…… (안경을 쓰고 보니 자기 젊은 날의
사진이다)

256

확 돋보기를 벗는다.
할머니 고맙네 이런 걸 갖다주니……
윤대식 늦어서 죄송합니다유.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뒤 돌아본다. 재성의 사진이 흐릿하게 된다. 뒤돌
아 앉아 안색을 가다듬고,
할머니 너 순희 나가서 중국요리 두어 가지 하구 술 한 병 하
구 사오너라.
박달군 아닙니다. 어머니……
할머니 내가 고마워서 그래. 같이 있었다니…… 내 자식을 만
난 것 같아…… 어디 손들 좀 빌려주게.
주저주저하다가 손을 내준다.
인자스럽게 잡는다.
할머니 자네두……
박달군 주저하다가 내민다.
할머니 이 손으루 내 자식 손을 잡았었나?
윤대식 예……
박달군 예……
할머니 고맙네…… 그애 하구 놀아 줘서 고맙네. 내가 이 고
장을 뜨구 싶어두 그애 때문에 못 떴어. 혹시나 돌아와서
해멜까 하구 말야.
눈물이 주루룩 흐른다.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는다.
할머니 전쟁이 끝나서 같이 간 사람들이 돌아온지 30년……
난 기다렸어. 혹시나…… 혹시나 하구 말야……
허부인 어머니, 그만 해 두세요.
할머니 내가 이제 여기 있어야 할 까닭이 없어졌다. 순희야
가서 북덕방 할아버지 좀 오시라구 그래라.
순 희 ……

할머니 바쁘시드라도 꼭 좀 왔다 가시라구 그래.
 순 희 네 (나간다)
 할머니 넌…… 신우에민 넌 빨리 애비 좀 오라구 그러구.
 허부인 걱정 마세요. 나중에 연락해두 되잖아요.
 할머니 아니야. 지금 불러온.
 허부인 혼자 계신데 어떻게 가요……
 할머니 어서 갔다 오라니까……
 허부인 죄송하지만 여기 좀 계셔 주시겠어요?
 박달군 걱정마시구 다녀오세요.
 허부인 다녀올게요. 그럼 어머니.
 할머니 오—냐
 허부인 나간다.
 어색해진 박, 윤 마주보고 후회한다. 할머니 일어난다.
 장농에서 옷가지를 꺼낸다.
 학생복, 바지, 저고리, 조끼, 태닝…… 나란히 놓는다.
 박과 윤 더욱 후회한다.
 할머니 (조용히 돌아보고) 그 애가 혹시 남한테 잘못된 일
 없었나요?
 윤대식 아니유. 되려 남의 사정을 돌봐준 셈이지유.
 할머니 겁쟁이는 아녘디까?
 윤대식 사실은…… (머리를 숙이며) 저희들 몇 명을 살리느라
 구 죽었어유.
 할머니 희생을 했던 말인가?
 윤대식 희생두 이만 저만한 희생이 아니지유.
 할머니 고맙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간다.
 박달군 어딜 가세요 어머니?
 할머니 자네들 뭘 좀 대접해야 될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레
 박달군 (일어나며) 아베요. 어머니님, 저희들 그러시면 일어나
 겠어유.
 윤대식 일어나겠어유.
 할머니 그냥 갈라구?
 박달군 걱정하시면 갈래요.
 할머니 가봐 그럼들……
 윤대식 혼자 계셔두 괜찮으시겠어유?
 할머니 아이가 곧 들어 올텐데 뭐 걱정들 말구 가봐.
 윤과 박 내려온다.
 윤대식 정말 안 전해드린 것만두 못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되
 베유.
 할머니 걱정말아. 내가 이래뵈두 보통 여자가 아니여.
 박달군 그럼 어머니님……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오!
 손을 잡는다.
 윤대식 어머니님 오래 오래 사세유.
 할머니 고맙네 어서들 가봐.
 윤대식 물러가겠어유.
 둘 절하고 나간다.
 할머니. 갑자기 허전해진다. 마루 위로 올라간다.
 방으로 들어간다. 재성이 사진을 보다가 탁 노친다.
 쓰러진다.

27. 골목안 삼거리

진 할아버지가 없다
 순희가 초조하니 기다리고 있다.

28. 교회 사무실

전 할아버지가 여기 와 있다.
 이 장로와 황 장로, 김 장로 좋아하고 있다.
 이상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진서 육보셨어요.
 전노인 내가 육본게 있나요. 자기가 먼저 꺼낸 애진데……
 황기도 생각나실 때마다 오세요. 두 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모든 교우들이 경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노인 내 지금 가다가 잠깐 들려 볼게요.
 이상우 그러세요 그러세요.
 전노인 그럼…… (나간다)
 모두 따라 나간다.

29. 끝목안 삼거리

맹꽁이 순희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 일수놀이 부인이 나타난다.
 부 인 여기 할아버지 없어요?
 순 희 저두 기다리는데 안 오시네요. 어디가셨는지……
 부인 금고를 열더니 오백원짜리 한 장과 통장을 꺼낸다.
 도장을 찍어서 통장을 도루 넣고,
 부 인 일수 가져갔다구 그래요.
 간다.

30. 여씨네 집

전 할아버지가 마루에서 주춤거린다.
 전노인 뭘하는 거야? 빨래 만지다 자니?
 방을 들여다 본다.
 이상하다.
 전노인 왜 그러구 있어? 대문은 활짝 열어 놓구 자요? 나 교회 갔다 오는 길이야. 들이 나오래. 아니 자나? 뭘 하구 있는 거야?
 올라가 본다.
 전노인 아니 왜 이래?
 손을 만져보고 당황한다.
 전노인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허씨와 오 재건이 들어 닥친다.
 허부인 어머니 신우 아빠 데려왔어요.
 오재건 어머니!
 비장한 얼굴로 내다 보는 전노인.
 허부인 왜 그래요?
 오재건 왜 그래요 할아버지?
 전노인 큰일 났네.
 오재건 왜요? (달려들어) 어머니!
 허부인 어머니!
 오재건 어머니!
 매달리며 운다.
 성가대의 코러스가 들려온다.
 전 밖으로 나온다.
 하늘을 쳐다본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261

무상한 것이다.

순희가 들어온다

순희 할아버지 여깃는걸. 가서 더럽다 기다리잖았어요.

전노인 누가 보내던?

순희 할머니가 모시구 오라구 그래서요.

안의 울음소리에 놀란다.

순희 어머 왜 저래요?

뛰어가더니 운다. 할아버지 한참 돌아보다가 나간다.

31. 골목길

젊은 남녀 학생들이 오간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온다.

성가대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골목안 삼거리

재수생들이 돈을 훑고 담배를 한 개피씩 꺼내 피운다.

할아버지가 온다.

아롱소리 얇고 동전을 상자에 넣는다.

나무 의자에 앉는다. 꼬마가 와서 돈을 낸다.

할아버지 까딱도 안한다.

꼬마 아이스케익을 하나 꺼내 갖고 간다.

할아버지, 먼 하늘을 내다본다. 차라리 무표정하다.

(끝)